

문화산책

이당금

예술이 뻘그라운드 대표



아고 나서 세상은 밤,
나의 눈은 더 깊어져서 고되고 벅차다
돌아가는 길은 늘 침묵이 지배하니까 나의 푸른 잎은
여전할 뿐 (박노식 시인의 시 중 일부)

연극은 언제나 어둠에서 시작한다.
모든 조명이 꺼지고, 소란의 진향이 사라진 자리에 침묵이라는 빈 공간이 펼쳐진다.
막이 오르고 배우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 빈 공간은 비로소 다시 세계가 된다.
어둠 속에서 세계를 다시 여는 것, 그것이 연극이다.
무대 위의 첫 등장은 한나 아렌트가 말한 ‘등장(appearance)’과 닮아있다.
배우의 등장은 세계 즉 관객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이며, 예술가는 바로 그 순간 세계와 접촉하고 존재를 실현한다. 그러나 세계 앞에 서는 이 행위는 동시에 무방비의 순간이기도 하다. 예술가는 자신의 불안과 상처, 사

어둠속에서 세계를 다시 여는 자들

회적 문제를 예술로 표현하며 그 과정을 성찰과 변화의 계기로 삼는다. 하지만 그 드러냄은 항상 위험을 동반한다. 타인의 시선, 특히 대중의 시선은 예술가의 내밀한 탐색을 손쉽게 ‘평가의 언어’로 바꿔버린다. 그 순간 예술가가 구축한 고유한 언어는 외부의 해석과 판단에 압도되며, 예술가는 자신을 지킬 여유조차 갖지 못한 채 흔들리며 존재의 가장 끝자리까지 몰리기도 한다.
최근 공연 작업에서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며, 그 결정이 외부 시선에 의해 어떻게 재해석 되고 확대되는지를 분명히 경험했다. 결정은 내부에서 신중하게 내려졌고 그 이유도 명확했지만, 노출되는 순간 사회적 시선은 결정의 옳고 그름을 넘어 그 결정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동일하게 판단하게 된다는 것들이 옳은 결정이라도, 시선이 집중되면 도덕적 판단과 무관하게 평가된다. 이것이 예술가가 쉽게 흔들리는 이유이며 동시에 예술가가 사회의 감각기관이 되는 이유다. 예술은 사회의 공공적 거울이다. 그러나 그 거울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예술가가 받은 상처와 감당해야 하는 위험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이처럼 예술가의 흔들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예술 생태계의 구조적 취약성과 맞닿아 있다.
문화예술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지역과 순수 예술을 뒤로 밀어둔다. 대중문화예술은 산업의 이름으로 성장하지만 순수예술과 지역예술은 생존의 언어를 말해야 한다. 지원은 있지만 기반은 없고, 정책은 말하지만 책

임은 예술가에게 남는다. 예술은 산업 이전의 언어이며, 예술가는 사회의 감각적 균형을 유지하는 최전선에 서 있다. 사회가 감지하지 못한 진동을 번역하는 사람들 또한 예술가다. 지역에서 예술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돌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공동체의 감각을 지키는 일이다. 지역의 극장과 전시장 같은 문화공간은 도시의 기억과 질문을 품는다. 예술의 뿌리는 언제나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서 자란다. 그럼에도 지역예술은 후순위로 밀리고, 예술가는 서류를 시작으로 기획·운영·홍보까지 홀로 감당하며 도시의 감정적 역사와 정체성을 본다. 대중이 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부재다. 예술을 경험하지 못한 시민은 예술을 이해할 언어도, 예술가의 고통을 감각할 단위도 갖지 못한다. 예술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시민이 세계를 감각하는 첫 번째 학습이어야 하며, 문화 선진국은 학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가 흔들리면 예술도 흔들리고 개인이 아프면 예술도 아프다. 그래서 예술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예술가는 고립되거나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예술가가 감당해야 하는 그 ‘시선의 무게’는 특정 사건이 아니라 사회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맨 앞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무게이기 때문이다.
아, 비록 세상이 발밑이라도 그 어둠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예술가의 눈이 살아 있는 한 우리 사회의 푸른 잎은 끝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기고

길종원

(사) 광주건축대체연합회 회장



광주가 진정한 문화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외형적 상징만으로는 부족하다. 도시의 문화란, 건물을 통해 내부로 드러나는 감수성과 품격이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건축은 도시의 정신을 담아내는 언어이며, 그 언어를 통해 시민들은 일상을 살아간다. 따라서 문화수도가 되려는 광주의 비전은 단지 전문가의 설계나 대형 시설의 건립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과 건축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공간문화’ 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광주에는 이미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문화적 자원이 존재한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거점으로서 복합문화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됐으며, 전일빌딩245는 5·18민주화운동의 기억을 공간으로 재해석한 역사적 건축물이다.
또한 디자인비엔날레와 어반폴리 등은 예술과 도시가

광주, ‘문화수도 건축문화’ 시민과 만들어가자

교차하는 장으로 시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실험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들이 본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시민과 전문가의 역할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건축은 더 이상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이 공간을 이해하고, 활용하며, 공공건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그 도시의 건축문화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시민 여러분이 아시아문화전당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전일빌딩245의 뜻깊은 공간을 되새기며, 디자인비엔날레·어반폴리 같은 행사에서 도시의 미래를 함께 상상해보는 행의 자체가 ‘문화수도’ 광주를 만드는 중요한 실천이 된다.
한편 건축인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부여된다. 건축가는 단지 도시의 형태를 설계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공간으로 변환하는 ‘문화 조정자’이다. 도시의 역사와 맥락을 존중하고, 시민의 요구를 설계에 반영하며, 미래세대도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 여기에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이 중심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개발이익이나 유행 논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건축계는 학계·전문가·행정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설계문화와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의 역할도 결코 작지 않다. 문화수도는 행정이 주

도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 이어지는 문화의 총합이다. 거리의 간판·건물 외벽·작은 골목길의 벤치 하나까지 시민의 시선과 선택이 도시의 품격을 결정한다.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이 넓어질수록 광주는 단순히 ‘건물의 도시’가 아니라 ‘문화가 숨 쉬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광주의 건축정책은 과거의 물리적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건축은 단지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기존의 도시 유산을 존중하며 미래세대에게 어떤 환경을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적 실천이다. 공공건축의 품격을 제고하고, 지역 건축가의 창의적 참여를 확대하며, 이렇게 건축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자존감을 세워야 한다.
문화수도시로서의 광주는 몇 개의 화려한 건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작은 골목의 담장과 거리의 벤치, 시민이 머무는 광장과 그 속의 풍경 모두가 어우러져야 도시의 품격이 구현된다. 건축인과 시민이 협력해 도시의 얼굴을 함께 그려나갈 때, 광주는 문화수도시로서 자부심을 더욱 견고히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건축은 도시의 언어이며, 시민은 그 언어의 독자이자 작가다. 광주가 세계 속의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도시의 건축이 시민의 손과 마음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광주의 미래다.

독자투고

해의 ‘고수의 알바’…취업 사기 뗏

최근 한국인을 상대로 한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고수의 알바, 단기 취업을 미끼로 취업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해외의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의 광고 수법은 젊은 층들을 유혹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 월 1000만원 보장, 경력 무관 전액 지원 등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100% 주의해야 할 경계 1순위이다.
이러한 광고를 믿고 현지에 도착하는 순간, 구직자들은 여권을 압수당하고 감금된 채, 몸캠,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등 불법 행위에 강제로 동원하게 된다.
단순한 취업 사기를 넘어 인신매매와 조직적인 범죄 연루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단 한 순간의 안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지극히 비현실적이거나 고수익을 유혹하는 광고는 의심하고 채용 기업 및 광고의 신뢰도를 철저하면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의 취업 사기의 뗏은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 치밀하게 설계한 구조로 모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인 스스로를 지키는 힘, 즉 개인의 신중함과 경계심이 바로 최고의 안전망이 된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장

사설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이젠 현실화될 때

18년 넘게 표류하던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국제공항으로의 통합 이전이 속도를 내게 됐다.
이해 당사자인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대통령실이 마련한 중재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해 이제는 실행국면에 접어 든 것이다.
이전 논의는 무안국제공항 개항때인 지난 2007년부터 제기돼 왔는데 그동안 ‘민간·군 공항의 패키지 이전’을 주장하는 광주시와 ‘선 민간공항 후 군공항 이전’을 추진한 전남도 등과 이전차를 좁히지 못해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19일 서울에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주선아래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대통령이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 중 약속한 ‘대통령실 주관 군공항 이전 6자협의체’의 사전협의로, 그동안 각 기관이 제기한 쟁점을 논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상호인정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들은 이날 무안군 발전을 위한 첨단산업기반 국가산단 조성과 1조 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 재정확보, 2027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 등 정부가 마련한 중재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동안 여러 난제로 인해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통합이전논의가 이번 협의에서 한발짝 나아간 것이다.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등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도 12월 중 공식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6자 협의체에 참여해 무안군 지원방안의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마련, 실무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무안군도 사회단체, 전문가, 언론, 주민 등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6자협의체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논의가 국가 주도로 급물살을 탔지만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통합이전을 위한 세부 항목 조율, 주민 투표 등 해결해야 될 과제 또한 만만치 않아서다.
이해 당사자인 광주시와 무안군, 그리고 전남도는 이 문제를 양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슬기롭게 풀어 나가길 바란다.
정부도 통합이전의 걸림돌 제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김치 면역조절 효과 과학적 입증됐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의 면역조절 효과가 탁월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세계김치연구소가 최근 단일세포 유전자 분석을 통해 김치 섭취가 과다한 면역 반응은 억제하면서 동시에 방어 기능은 높이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이다. 김치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광주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는 김치의 면역학적 효과를 단일세포 수준에서 연구하고 밝힌 세계 최초의 사례로, 김치가 대사 건강뿐 아니라 면역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이번 연구는 과체중 성인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위약, 자연발효 김치 분말, 중균발효 김치분말을 각각 섭취하게 한 뒤 혈액에서 밀초혈액단핵세포를 채취해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세포별 유전자 발현 변화를 추적, 기존 김치로는 놓치기 쉬운 면역 반응의 세밀한 변화를 밝혀냈다.
분석 결과, 김치 섭취군에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자를 인식하고 신호를 전달하는 항원제시세포의 기능이 강화되고, 방어 세포와 조절 세포로 균형 있게 분화되는 현상이 확인됐다고 한다. 즉, 김치가 단순히 면역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방어 능력을 높이고 불필요한 과잉 반응은 억제하는 ‘정밀 조절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또 자연발효와 선택·배양한 미생물을 인위적으로 접종해 발효를 유도하는 중균발효 툴다 면역 균형 유지에 긍정적이었으나, 중균발효가 면역조절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김치를 단순한 전통 발효식품을 넘어, 면역 건강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기능성 식품이라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개발, 백신 효과 개선, 면역질환 예방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식품과학 분야 상위 10% 국제학술지인 ‘npj Science of Food’에 게재됐다.
세계김치연구소는 앞으로 김치와 유산균의 면역·대사 건강 연구를 국제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오는 22일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인 세계 김치의 날이다. 단순한 한국 음식이 아니라 세계가 즐기는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김치의 소중함이 다시 한번 느껴진다.

취재수첩

더이상의 인제는 안돼

윤용성

사회부 기자



10여년 전,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청해진해호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는 해운사의 부실한 선박 관리와 안전 교육, 이를 방치한 승무원들, 선장과 항해사의 판단 착오와 늦장 대응 등이 빚어낸 인재였다.
참사 후 안전은 뒷전인 구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마음을 담아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해 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라는 고질병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지난 19일 오후 4시45분 제주에서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발한 컨테이너비이2호가 같은 날 오후 8시16분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죽도 위에 선체가 절반 가량 올라서며 좌초했다.
사고는 항해사의 부주의와 선장의 의무 위반 등이

빚어낸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연안 여객선 항로가 집중된 협수로로 자동항법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수동으로 운항을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운항을 하던 중 변침(방향 전환 시기)을 놓쳤고, 당시 항해사는 휴대전화를 보는 등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
선장은 휴식시간에도 선원법상 조타실에 재선을 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각종 사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관리 기관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 조치를 시행했었다면 대형 참사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
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당국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 제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또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
순간의 부주의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상사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적극적인 사고 예방에 나서야 한다.

최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부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는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	---